

## '95 양돈주요 시책

정 동 흥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 축산사무관)

### 1. 양돈산업 현황

우리의 국민경제가 그간 꾸준한 성장을 하여 오면서 국민총생산액중 농림수산업의 비중은 '70년에는 27.8%에서 지난 '93년에는 7.1%로 감소하고 있으나 농림수산업중 축산업의 비중은 5.5%에서 8.7%로 계속 증가되고 있다.

또한 농업조수입중 쌀의 비중도 '70년도에 55.6%에서 '93년도에는 37.7%로 감소하였으나 축산업은 5.6%에서 20.4%로 늘어났으며, 축산업중 돼지사육농가의 경우 전체 축산농가 809천호중 54천호로서 6.7%를 차지하고 있으나, 양돈의 생산액은 13,160억으로 여타 축산물(소, 돼지, 닭) 생산액 47,380억의 27.8%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간 11천여톤을 일본에 수출하여 65백만불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어 농가소득과 외화획득에 중요한 산업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돼지분뇨처리의 어려움과 농촌노동력의 부족 등 돼지 사육여건이 어려워지고 있고 아직도 80%의 양돈농가가 100두 미만의 영세한 규모로서 낙후된 시설에서 사육하고 있고 도축장 및 판매장의 유통시설이 전 근대적이며 양돈업에 대한 사육규제제도가 존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료원료 및 배합사료에 대한 세제 등의 제도가 개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입 개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95년부터 '97. 6. 30 이전까지는 현행관세인 25%로

최소시장접근물량이 설정(지육기준)으로 '95년의 경우 21,930톤(정육기준 17,544)되어 있어 이 물량은 의무적으로 수입하도록 되어 있고 '97. 7. 1 이후에는 완전 자유화 하되 관세는 25%에서 33.4%로 인상후 2004년까지는 매년 1.2%씩 감축하여 현행과 같은 25%까지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입이 자유화 되면 국내 선호도가 높고 외국에선 가격이 싼 삼겹살, 갈비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이 예상되어 국내 돼지고기 가격을 미치게 되므로 양돈업이 위축되고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 영세 규모의 농가는 타업종으로 전환하는 등 양돈업의 구조 변화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돼지사육동향을 보면 지난 '90년에 돼지 사육호수는 133천호이었으나 '94년에는 54천호로서 '90년대비 무려 59.4%가 감소되었고 지난 1년 동안 23%에 해당하는 16천호가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지난 여름철에는 폭염으로 인한 폐사, 수태율 부진 등의 피해로 돼지가격이 상승되고 이에 따른 피해는 '95년에까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양돈산업은 수입자유화 이전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여야 할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하에서 '95년에 추진할 양돈업의 주요 시책 내용을 소개하므로써 양돈업에 종사하는 양축농가와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표 1〉 돼지사육 및 가격동향

|                       | '90   | '91   | '92   | '93   | '94   |
|-----------------------|-------|-------|-------|-------|-------|
| ○ 사육호수(천호)            | 133   | 129   | 99    | 70    | 54    |
| ○ 사육두수(천두)            | 4,528 | 5,046 | 5,463 | 5,928 | 5,955 |
| ○ 호당두수(두)             | 34    | 39    | 55    | 85    | 110   |
| ○ 산지돼지가격<br>(천원/90kg) | 148   | 158   | 120   | 127   | 143   |

## 2. '95 양돈 주요 시책

### 가.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돼지고기는 지난 '80년대에는 과잉, 과소 생산에 의한 가격변동이 주기적으로 나타났으나, '90년대 이후에는 사육여건이 변화되면서 사육호수의 감소와 함께 규모화, 전업화 되면서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으로 비교적 안정된 가격을 형성하여 왔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지난해 여름철의 폭염피해 영향으로 수태율이 저하되어 금년 6~8월에 출하될 돼지가 부족하게 되고 돼지고기 수입제도가 정부에서 시행하던 것이 민간에 의한 수입권 공매형태로 변경됨에 따라 정부의 수급조절 기능이 약화되고 아울러 수입개방과 축산분뇨처리 등 돼지사육여건이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수급 및 가격안정 시책추진이 더욱 어려워진 실정에 있다.

금년의 산지돼지가격은 6~8월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간 어미돼지두수가 증가되고 있으며 겨울철의 질병발생률도 감소되었고 겨울철의 기온 여건이 좋아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생산량 증가에 의거 돼지가격도 하향 안정세가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수급상 부족한 돼지고기는 6월말 이전에 전량 수입되도록 하므로서 산지돼지가격을 90kg 기준으로 하여 130~135천원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하고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수매비축 사업을 실시하도록 소요자금을 확보하는 등의 돼지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금년도의 돼지고기 수요량은 내수용 674.6천톤과 수출수요 13천톤을 합하여 총 682.6천톤으로 지난해 보다 5.9%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중 국내 생산량은 93%에 해당하는 636.3천톤(12,476천두분)을 공급하고 24.2천톤은 수입육으로 공급되되 이중 전년도 이월량 6.7천톤과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하는 17.5천톤을 수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요량에 비하여 22.1천톤이 부족한 실정인데 부족되는 량에 대하여는 산지돼지 가격 동향을 감안하여 필요시 축협중앙회를 통하여 수입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수입육은 지난해에 수입된 비축량 6.7천톤을 금년 1월부터 축산물 도매시장 등을 통해 경매와 축협조직 등을 통해 공매하는 등 산지돼지가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UR협상에 따라 '95년부터 최소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돼지고기(정육기준) 17,544톤에 대하여는 축산물을 유통사업단으로 하여금 실수요자에게 수입권을 공매하게 되는데 대외 무역법 규정에 의한 무역업 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누구나 공매에 참여 참여할 수 있으며 공매납입금을 많이 제시한 자의 순서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며, 수입권 공매낙찰을 받은 자는 축협중앙회장의 양허관세 추천을 받아 25%의 세율관세로 수입하게 된다. 수입권 공매입찰은 총 대상물량 17,544톤 중 8,000톤에 대하여 이미 지난 1.24일 8,000톤이 낙찰

〈표 2〉 '95 돼지고기 수급계획

| 수요량         |      |       | 공급량   |      |          |      |       | 부족    |
|-------------|------|-------|-------|------|----------|------|-------|-------|
| 내수          | 수출   | 계     | 국내생산  | 수입육  |          |      | 합계    |       |
|             |      |       |       | 전년이월 | 시장접근물량수입 | 소계   |       |       |
| 천톤<br>674.6 | 13.0 | 682.6 | 636.3 | 6.7  | 17.5     | 24.2 | 660.5 | △22.1 |

되었고 잔여량 97,544톤은 2월중에 공매되는데 선적을 기준하여 한 수입일정을 보면 <표 3>과 같다.

또한 지난해 이월된 수입 돼지고기와 최소시장 접근 물량으로 수입되는 돼지고기를 공급하고도 22.1천톤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물량은 국내 돼지가격 동향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축협중앙회를 통하여 수입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표 3> 돼지고기 시장접근물량 수입권공매에 의한 수입 일정(선적기준)

|     | 2.20  | 3.20  | 4.10  | 4.30  | 5.20  | 계      |
|-----|-------|-------|-------|-------|-------|--------|
| 수입량 | 3,200 | 4,800 | 3,000 | 3,200 | 3,344 | 17,544 |

### 나. 돼지경쟁력제고 사업

돼지고기의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돈농가가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양돈농가에게 사육규모를 전업화 하고 시설의 자동화 등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므로써 전업양돈농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전업양돈농가는 '95년까지 3,300호를 2001년까지 5,000명을 육성하여 이들 농가가 전체 돼지사육두수의 80%를 사육토록 할 계획이며, '95년도 사업은 다음과 같이 추진된다.

#### ○ 사업신청자격

- 전업양돈농가, 종돈업경영자

3년 이상 양돈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자금지원 후 2년 이내에 500두 이상을 가족노동력으로 사육할 수 있는 자 우선).

종돈업 : 종돈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종돈분양 실적이 있는 자

- 축협, 법인, 협업체 등

축산업협동조합, 양돈업종조합

축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양돈업을 목적으로 정관을 정하여 운영하는 협업체

#### ○ 사업내용

- 기반시설, 축사시설, 급이·급수시설, 환경개선시

설, 각종 관리용기계·기구 구입비 등 양돈농가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 -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별도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으로 지원

○ 사업비 : 1,169억(축산발전기금)

#### ○ 지원조건

- 지원액 : 농가당 2억원이내, 법인은 자기자금의 200%이내, 축협 및 공공기관은 400% 한도내 지원하되 종돈업생산시설은 생산능력,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금을 증액하여 우선지원
- 지원비율 및 조건 : 융자 70% 이내, 자담 30% 이상으로(연리 5% 5년거치 10년상환)

### 다. 축산단지 조성사업

도시화에 의한 환경문제와 축산업자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공동으로 사료 등 자재를 구입하고 생산의 판매, 방역, 분뇨처리 등으로 생산비절감과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축산단지조성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 ○ 사업신청자격

- 대상축종 : 한우, 젓소, 돼지, 닭

- 사업대상자

- 대상부지를 자체에서 확보하고 기존의 시설을 이전하는 등을 위해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
- 기조성된 단지중 사업보완을 위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한 단지
- 기존의 가축사육지역에 시설 등을 보완하여 단지화 하고자 하는 지역

- 참여농가 구비조건

- 가족노동력을 이용하여 전업축산농가 규모로 단지를 구성하는 경우(한우, 젓소는 3호 이상, 돼지, 닭은 5호 이상의 전업농가가 참여)
- 과거 5년간 동일축종을 전업화 이상으로 사육한 경험자를 참여시킬 것
- 단지조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재력과 담보능

력이 있는 자

○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사업비 : 64,934백만원(축산발전기금)
- 사업내용
  - 기반시설(진입도로, 목도, 용수개발, 전기인입 등), 조사료 생산기반조성기계·기구구입비, 축사 및 부대시설 설치비 등
  - 단, 가축구입비, 부지구입비, 경영비는 지원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지원액 : 참여농가당 3억원 이내(2년간 50%씩 분할지원)
  - 지원비율
    - 기반시설 : 보조 70~90%, 자담 10%
    - 축사 및 부대시설 : 융자 70%, 자담 30%
- 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계약 생산된 축산물의 가공, 유통능력이 있는 자

○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사업비 : 20,200백만원(축산발전기금)
- 사업내용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기간 : '95. 1월~'96. 12월(2개년간)
  - 지원내용 : 사육시설, 도축(도계)장, 종축생산 시설, 가공 및 판매시설 등 단, 부지 및 가축구입비는 지원에서 제외됨.
- 지원조건
  - 지원액 : 지원요청액에 대하여 2년간에 걸쳐 분할 지원
  - 지원비율 및 조건 : 융자 70%이내, 자담 30% 이상(5년거치 10년균분상환 연리 8%) (생산자 단체의 경우 5%)

라. 가축계열화 사업

양축농가는 계열주체와 예약하여 일정소득을 보장받게 하고 축산경영 안정을 도모하며, 전문경영주체는 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의 통합경영으로 생산비와 유통비용을 절감토록 하기 위한 가축계열화사업이 다음과 같이 추진된다.

○ 사업신청 자격

- 대상축종 : 한우, 돼지, 닭
- 사업대상자
  - 도축, 부화, 종축업, 사료제조업 등 축산관련사업자로서 신규로 가축계열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 및 생산자단체
  - 기존 계열화 업체중 사육환경개선 또는 기타시설을 보완하여 생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업체
- 대상자 구비조건
  - 자부담 능력이 있고 융자금에 대한 담보능력이 있는 자
  - 계열농가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능력이 있는 자

마. 돼지고기 품질개선 지원사업

돼지고급육 생산을 위한 규격돈 출하장려금 지급사업은 WTO 규범과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어 폐지하고 금년부터는 고품질의 위생적인 돼지고기를 생산토록 하기 위하여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본 사업은 고품질의 돼지고기 생산을 위하여 조직화된 단지를 돼지고기 품질개선 단지로 육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양돈경영의 전산화하므로서 경영개선 및 기술지도를 통한 양돈산업을 안정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 사업대상

- 「돼지고기품질개선단지」(종전의 양돈수출단지로 지정된 단지)
- 단지구성원이 아닌자로서 '95. 1. 1~1. 31 사이에 조합을 통하여 육가공업체와 규격돈 생산계약이 체결된 자

○ 지원대상농가 :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되는 돼지

를 출하한 농가

- 단지대표 또는 조합이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식육제품제조·가공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  
 출하한 돼지(수출, 내수구분 없음)

- 도체중이 박피기준 67~77kg(탕박기준 77~88 kg)인 돼지
- 유해잔류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돼지(TLC 검사에 합격한 돼지)

- 수돼지의 경우 거세한 돼지

○ 지원금액 및 내용

- 지원액 { 단지의 농가 : 돼지 1두당 7천원  
 { 단지 이외의 농가 : 돼지 1두당 5천원

○ 지원내용 { 단지참여농가 : 비육돈 후기사료  
 { 단지이외의 농가 : 시·도지사가 지역실  
 정에 맞도록 비육돈 후기사료 또는 현금  
 으로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 : 9,250백만원(축산발전기금)

- 사업기간 : '95. 2월~12월(11개월)

※ 단지 구성원이 아닌 자(조합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95. 6. 30까지 한시적으  
 로 시행하고 점차 단지 구성원이 되도록 유도한  
 다.

- 한편 육가공업체의 돼지고기 품질개선 추진에 따  
 른 잔여육 처리를 위한 유통개선 사업은 가공잔여  
 육 유통개선사업으로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추진  
 된다.

- 사업량 : 14,400톤(냉동육 10,800, 냉장육 3,600)
- 지원단가(수출 1톤당) : 냉장육 1,000천원, 냉동육 700)
- 사업비 : 11,160백만원
- 재원 및 지원조건 : 축산발전기금융자 년리 5%, 1년거치후 일시 상환

### 3. 양돈업 규제완화 추진

'97. 7이후에는 돼지고기의 수입이 자유화 되도록 되

어 있으나 국내 양돈업은 아직 허가제가 존치되어 있고  
 1,000두 이상은 사육이 제한 되어 있는 등 경쟁을 제한  
 하는 제도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95년중에 현행 농림수산부령  
 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록·허가규모와 허가 상한선을  
 현실화 하고 대기업 참여규제의 일부 내용을 완화하는  
 등의 실질적인 양돈업의 규제 완화하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4. 맺는말

양돈업은 돼지고기의 꾸준한 수요증가와 대일수출이  
 지속되고 있어 성장산업으로서의 일면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는 '97. 7월 이후 수입이 자유화되고  
 분노처리의 어려움과 노동력부족 등의 국내외적인 양  
 돈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앞으로 양돈업이 지속적인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일이  
 라 본다.

WTO 체제하에서 우리와의 경쟁력 상대국이 되는 대  
 만이나 덴마크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은 어려움을 당  
 하고 있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양돈산  
 업이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만 한다면  
 경쟁 상대국에 앞서서 지리적인 점을 충분히 살려 이웃  
 일본이라는 거대한 수출시장의 점유율을 계속 늘려나  
 가고 국내의 돼지고기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품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양돈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각  
 종 시책을 제시하고 양돈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중  
 점 지원하는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제 앞으로의 양돈업은 생산만 하면 된다는 의식에  
 서 벗어나 세계를 보고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생  
 존한다는 의식을 갖이고 자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양돈농가들이 조직체로 구성하고 새로운 정보인 기술  
 을 받아들여 전문경영인이 되어야 한다는 각오와 이의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